

희망과 기대로 시작된 병술년 2006년도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바라보면서 아쉽고 서운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올해 우리 낙농가들의 가장 큰 현안인 원유수급문제를 놓고 볼 때, 2006년 한국낙농의 모습은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한해였습니다.

# 한해를 보내며



황병익 · 회장  
한국낙농경영인회

희망과 기대로 시작된 병술년 2006년도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바라보면서 아쉽고 서운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올해 우리 낙농가들의 가장 큰 현안인 원유수급문제를 놓고 볼 때, 2006년 한국낙농의 모습은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한해였습니다. 어쩌면 최근의 원유수급상황이 별 문제없이 지나고 있자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고 근본적인 원유수급제도 마련에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DDA 협상과 각국과의 연쇄적인 FTA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대대적인 유제품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현재 아무런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낙농업은 실패한 낙농정책 덕에 해마다 수백억 원씩의 정부 원유수급 자금으로 버티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부 선진국들이 식량, 환경, 국토보존 등의 목적으로 유대의 일정부분을 보조해주고 있지만, 이는 낙농업이 갖는 공익적이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철저한 납세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처럼 잉여원유의 판매가와 생산비와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납세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목표로

이제 유업체는 외국의 유업체와 낙농가는 해외 낙농가와 서로 경쟁해야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가와 유업체가 서로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유수급문제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더 기다려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FTA 나 DDA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만한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FTA와 DDA협상 타결 후 북해도산 시유나 각국의 유제품이 저 관세로 물밀 듯이 들어온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유업체와 낙농가들일 것입니다.

이제 유업체는 외국의 유업체와 낙농가는 해외 낙농가와 서로 경쟁해야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가와 유업체가 서로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유수급문제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더 기다려 줄지 모르겠습니다. DDA 나 FTA 협상은 마치 한울타리 속 동물원의 모든 문을 열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나 토끼와 기린도 이제 각자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하여야 합니다.

이런 무한경쟁 속에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 낙농가들의 뛰어난 두뇌와 근면성일겁니다. 우리민족은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줄 아는 훌륭한 능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반면에 오랜 분단의 역사가 말해주듯 우리민족은 잘 화합할 줄 모르고, 감정적이며 자기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자신의 말보다 남의 이야기를 더 소중히 들어주는 그런 현명한 낙농가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10월 18일 경기도 안성에선 '2006 한국홀스타인품평회'가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전국각지에서 191두의 아름다운 젖소들이 출품되어 1989년 제 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수준



최근 우리의 낙농업은 생산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종축개량에 관심을 둔 검정 농가들의 생산성은 일반농가보다도 30% 이상이나 앞서서 두당 산유량에서 세계 4위 수준인 두당 9천kg 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종축개량을 통해 전국의 젖소를 현 검정우 정도의 생산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현재 전국의 50만두 젖소를 38만두로 감축해도 지금의 우유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높았던 대회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 낙농가들이 얼마나 종축개량에 관심을 갖고 목장의 경쟁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의 심사를 위해 일본에서 온 '다카하시' 씨는 대회 후 소감에서 "품평회장이 없다는 것을 빼곤 대회운영과 출품축의 수준 모두가 일본에 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7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당시 국내에선 낯설었던 홀스타인품평회의 개최를 위하여 고군분투하였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전국의 축산농가들을 위하여 실내품평회장을 지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축개량이란 바로 국가사업이고 좋은 유전자원의 확보가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의 낙농업은 생산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종축개량에 관심을 둔 검정농가들의 생산성은 일반농가보다도 30% 이상이나 앞서서 두당 산유량에서 세계 4위 수준인 두당 9천kg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종축개량을 통해 전국의 젖소를 현 검정우 정도의 생산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현재 전국의 50만두 젖소를 38만두로 감축해도 지금의 우유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약 40만톤의 수입 곡물사료를 절감 할 수 있으며, 연간 150만톤의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효율적인 종축개량이야말로 한국낙농의 희망이며 열악한 여건에서 선진국과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실내품평회장의 건립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값싼 투자 일 것입니다. 농가의 노력으로 한 산업분야가 발전하고 있을 때, 농가의 오랜 바람을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도리입니다.